

일본의 주력 기업들, 금융으로 수익창출

- 일본의 주력 기업들이 본업이 아닌 금융업을 통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
- 이는 본업에 비하여 환율이나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금융업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

- 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40개 주력 기업들의 2011년도 영업이익에서 점하는 금융의 비율이 27%에 달함
 - 2007년만 해도 7%에 불과했던 금융업이 자사제품의 판매 촉진 등 본업을 보전할 목적으로 강화시켜 왔기 때문임

□ 이온(주)

- 이온은 2013년 2월 결산기에 금융사업의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약 30% 증가할 전망
 -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머니(WAON)의 이용 증가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, 내점객용 주택론 등도 증가하고 있음
 - 세븐 앤 아이홀딩스도 편의점에 설치한 ATM 이용자도 증가

□ 3대 자동차메이커

-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론 등 판매금융이 견조를 보이고 있음
 - 도요타자동차는 대지진 등으로 생산이 침체된 금년 3월 결산기에 영업이익의 80%이상을 금융이 점함

- 2013년 3월 결산기에도 약 30%에 해당하는 3,000억엔의 이익을 낼 전망
- 이는 높은 신용을 배경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강점을 살리고 있으며, 혼다나 닛산자동차도 금융의 이익기여도가 높음

〈주요 주력기업의 금융업 현황〉

기업	금융업의 영업이익 (억엔)	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(%)	사업내용
도요타자동차	3,000	약 30%	자동차 론
세븐 앤 아이홀딩스	356	11	은행, 신용카드
이온	290	13	은행, 신용카드
다카시마야	34	14	크레디트카드
소니*	1,314	-	생명손해보험, 은행
라쿠텐*	129	18	크레디트카드, 은행
미즈코시이세탄홀딩스	40	16	크레디트카드

자료: 일본경제신문(2012.9.6)

주) 2012년도 예상치, *는 2011년도 실적치

□ 라쿠텐(주)

- 라쿠텐(주)의 경우, 인터넷금융 부문의 영업이익은 2012년 1~6월 기간 중 95억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약 2배 확대
- 라쿠텐카드 등 서비스이용자들은 인터넷통신판매로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본업과의 상승효과가 큼
- 기간 전체로는 200억엔을 상회, 전체 영업이익의 20%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

□ 소니

- 본업과의 관련성은 적으나 착실히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소니의 금융사업
- 소니는 1979년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 생명보험사업에 참여한 이후, 손해보험과 은행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옴
- 前期에는 박형 텔레비전 등 본업의 적자를 일부 메꿀 정도로 성장하였으며, 當期에 들어서도 4~6월 기간 중 연결영업이익이 62억 엔에 그친 가운데, 금융은 275억엔으로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

□ NTT

- NTT그룹과 같이 자회사들이 담당해 온 대금청구업무를 금융자회사에 집약시킴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는 움직임도 있음

□ 환율이나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금융업의 강점

- 환율이나 경기 영향으로 본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해진데 비하여, 금융업은 대출금 등의 잔고에 따라 일정한 금리수입을 올리는 강점이 있음
-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본업이 취약성을 드러낼 우려도 있어, 기업의 수익구조에서 금융업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

□ 시사점

- 1980년대 후반 버블기 일본기업들은 부동산과 주식매입을 하여 생산과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않은 재테크로 인해 버블의 재생산

과 악순환이 조장되다가, 마침내 1990년대 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가격의 폭락→복합불황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겪었음

- 현재 일본의 주력 기업들은 본업의 경영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업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, 이를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
- 과거 버블기 당시 일본기업들의 재테크 행동이 투기의 성격을 지녔다면, 최근 금융사업 전개는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, 본업을 소홀히 하고 비제조업인 금융에 치중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9.6)